

해지 위약금 없는
소상공인 보안서비스

KT텔레캅 출시

KT텔레캅이 약정 기간과 해지 위약금이 없는 월 2만5000원짜리 소상공인 전용 보안서비스 텔레캅 듀오를 20일 내놔다.

텔레캅 듀오는 실시간 영상 확인, SD 메모리카드 및 PC에 영상 저장, 침입 감지 및 긴급 출동, 정기 순찰 등으로 구성된다.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음성으로 보안 경계를 설정·해제할 수 있다. 기존 서비스는 월평균 5만~7만원에 3년간 약정 기간을 설정하고 해지 위약금도 내도록 돼 있다. 텔레캅 듀오는 소상공인의 폐업과 이전이 빈번한 점을 고려해 약정 기간과 해지 위약금을 없앴다.

회사 측은 사업장에 설치하던 하드웨어 장치를 없애고 이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장비비와 공사비용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영상과 방범센서를 결합한 듀얼서비스는 전문업체가 이상 상황 발생 여부를 복합적으로 감지하도록 해준다. 방범센서가 이상신호를 인식하면 영상센터가 실시간 촬영 영상을 관제센터로 곧바로 전송한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천연 약초 발효팩 ... 신비로운 '동양의 美'에 해외서 러브콜

"제주도, 동양의 약초, 화산송이 동굴을 얘기하면 해외 바이어들이 좋아합니다."

화장품제조업체 유니크미 광희옥 대표의 말이다. 제주, 약초, 화산송이란 세 개 키워드는 유니크미의 마스크팩 제품인 유니크팩의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유니크팩은 제주의 천연약초를 천연화산송이 동굴인 제주 방림원에서 100일간 발효한 원료로 만든다. 광 대표는 "유해 화학성분이 없는 건강한 천연 원료의 제품에 신비한 동양 이야기를 입혔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러시아 인도네시아와 수출 상담 중"이라고 말했다.

◆"SKII 팩 4분의 1 가격" 광 대표는 방송 제작사 유니크미 미디어의 대표도 맡고 있다. 2016년 5월 방송 촬영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야생화 정원을 방림원을 찾았다. 야생 식물이 가득했다. 이곳엔 화산송이 천연동굴이 있다. 1년 내 온도가 일정해 물이 고여도 썩지 않는다. 방한숙 방림원 원장이 동굴에서 발효한 오미자차를 내왔

다. 그 순간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여기서 발효 화장품을 만들면 어떨까.

1년 반 동안 화장품 개발에 매달렸다. 작년 말 유니크팩이 나왔다. 마스크팩이 넘쳐나는 시장에서 차별화 포인트로 잡은 것은 두 가지다. 천연 원료와 스토리. 유니크팩의 원료는 삼백초 어성초 하늘타리 알로에 적하수오 등 다섯 가지다. 모두 제주에서 구한 천연 약초로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광 대표는 "천연 약초 그 자체로도 피부에 좋는데 발효하면 더 좋다"고 설명했다.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원료의 분자 입자가 작게 분해돼 피부 흡수력이 높아진다. "천연 동굴에서 숙성한 약초는 보존성과 해독성이 높아 일반 발효 화장품에 비해서도 항산화 항균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제품 생산도 제주에서 한다. 제조업체는 제주에 있는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업체인 UCL이다. 가격은 5종 패키지(5장)가 3만원, 장당 6000원이다. "SKII 발효 마스크팩의 4분의 1 가격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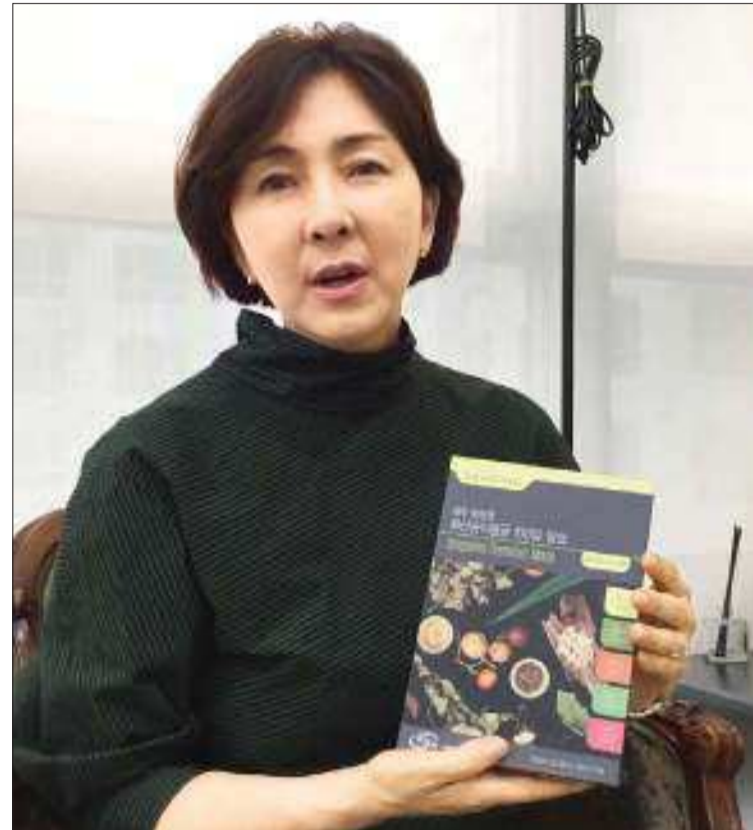
제주 천연 화산송이 동굴 방림원에서 100일간 발효

'30년 방송제작' 광희옥 대표 제주의 신비한 스토리 입혀 美·中·日·러시아와 수출 상담

만 효과는 훨씬 좋다"고 광 대표는 강조했다.

◆화장품에 꽃힌 방송제작자 유니크팩은 네이버스도어와 티몬 위메프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이다. 현피부과 등 서울 청담동에 있는 피부과에도 공급한다. 이달 말 신세계그룹이 삼성동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열 예정인 페어에서도 팔기로 했다. 광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세계 시장으로 나갈 생각을 했다. 마케팅 스토리로 해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다.

광 대표는 다큐멘터리 방송작가였다. 2015년 취재자 미얀마 양곤을 방문했다가 화장품사업에 꽃혔다. 그곳에선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다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ykyoon@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5-7월 으뜸중기 제품 스리얼스 판-리얼라인 기능성 밸런스 콜프공 △슬리디어랩-내가 만드는 스마트토이 셀토 △타임이앤씨-와로스(아외용 숯볼 바비큐 그릴) △오렌지몽키코리아-폴디오3(포터블 미니 스튜디오) △원스프루트 임-원스마트디자이너 △유니크미-제주 천연 약초 발효 마스크팩 유니크팩 △지비슬루션즈-루나스퀘어 엘리아 △어덱트-다운핏

← 광희옥 유니크미 대표가 유니크팩의 천연 원료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전설리 기자

다. 나무를 갈아 물에 개어 만든 천연 자외선 차단제 타카키였다. 타나기를 한국에 들여와 화장품사업 하고 싶었다. 하지만 상품화

가 어려워 접었다. 그러다 제주 방림원에서 화장품사업을 하기로 했다. 광 대표는 "화장품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은 방송과 같은 기

획력"이라며 "30여 년간 방송 일을 했기 때문에 기획은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다"고 했다.

전설리 기자 sjiun@hankyung.com

"아직도, 모델하우스 지으세요?"

이젠 부동산 박람회 에서 분양하세요.

완판분양! 원스톱 부동산 쇼핑!
최신 해외 부동산 즉석 구매!

한경 국제 부동산 박람회
리얼티 엑스포 코리아 2018

2018. 9. 19 - 21 | 서울 코엑스 A홀

참가 및 참관신청 ☎ (02) 360 - 4260~5 🌐 www.realtyexpokorea.com

참가업체, 선착순 접수!

주최 | 한국경제신문

주관 | 연경부동산연구소
YK Real Estate Research Institute

CCIM 한국협회
CCIM Korea Chapter

베트남 진출 '특급 도우미'가 떴다

온라인 쇼핑물 비나코
내달 'O2O 매장' 개관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베트남에 소개하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매장이 다음달 초 호찌민에 문을 연다. 한국 중소기업들이 싼값에 베트남 오프라인 매장에 전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모델이다.

온라인 쇼핑물업체 비나코는 다음달 7일께 호찌민 중심상권인 1구에 400여 개 업체 제품을 진열할 상품전시관을 개관한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부터 한국 제품 전용 온라인 쇼핑물사업을 베트남에서 하고 있는 비나코는 베트남 내 회원 9만 명을 확보하고 있다. 비나코는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로드숍 개념의 O2O 매장을 내기로 했다. 비나코는 상품전시관을 연달까지 10개로 확대하고 3년 내 1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O2O는 소비자가 방문해 직접 상품을 보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쇼핑에 익숙지 않은 베트남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비나코는 O2O 매장에 입점할 100여 개 업체를 선정했다. 베트남 시장에서 통할 다른 중소기업 제품으로 남은 300개 품목을 채울 계획이다. 비나코 관계자는 "뷰티 액세서리 의류 건강보조식품 생과일 등 유아용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베트남 시장 문을 두드려볼 기회"라고 설명했다.

비나코는 베트남 최대 국영방송사(BTV)가 매년 발표하는 '2018 올해의 50대 유망기업'에도 한국 기업 최초로 선정됐다. 또 베트남 최대 유통망을 보유한 BIG-C와 화장품 등 한국 중소기업 제품의 독점 공급 협약 체결도 협의 중이다. 베트남 최대 마트인 VIN마트 등에 상품을 공급하는 질로스(GILOS) 등도 한국 상품 공급 협약을 맺었다. 인사영 비나코 마케팅담당 상무는 "베트남 무역상들은 제품 수입에 앞서 소비자 반응을 중요시하는 만큼 O2O매장 개관이 국내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큐링 냉온정수기로 시원한 여름나기" 현대백화점그룹 렌탈업체인 현대렌탈케어는 한여름을 앞두고 큐링 더슬림 물케어 직수형 냉온 정수기 판매를 시작했다. 물이 흐르는 관을 집중 살균해 위생성을 높인 제품이다. 20일 현대렌탈케어 직원들이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하늘정원에서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현대렌탈케어 제공

교원, 한국모태펀드에 90억 출자 ... 스타트업 키운다

교원그룹은 투자전문 자회사 교원인베스트가 한국모태펀드에 출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원인베스트는 한국벤처투자,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창업투자회사와 한국모태펀드 출자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조성한 펀드다.

교원은 '컴퍼니케이-교원 창업 초기펀드'에 투자한다. 이 펀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신기술을 갖춘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할 예정이다. 약정총액은 300억원으로 교원그룹은 이 중 30%에 해당하는 90억원을 출자한다. 정부가 180억원,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30억원을 출자했으며 컴퍼니케이

파트너스가 운용을 맡는다. 교원은 이번 투자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교육·가전 등 사업 분야에서 협력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갖춘 스타트업과 협업을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설리 기자 sjiun@hankyung.com